

 한국노인인력개발원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보 도 자 료 11월 8일(금) 조간	
배 포 일	11월 7일(총9매)	담당부서	연구정보팀
원 장	박 용 주	전 화	02-6007-9174(지은정 부연구위원)
연구정보팀장	조 준 행		

『고령화사회 보편적·균형적 노후설계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발표

노후 준비, 사후 대처보다는 ‘전 생애를 포괄하는 정책’ 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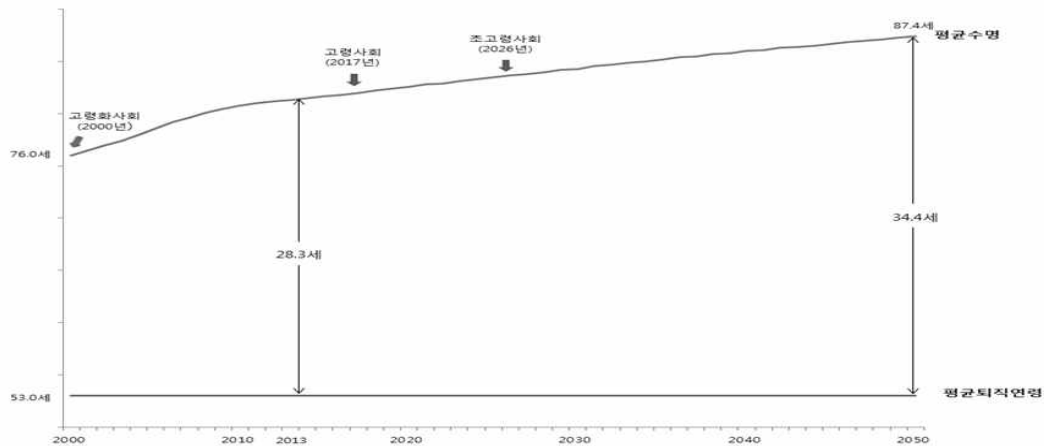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박용주)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사회 보편적·균형적 노후설계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평균퇴직연령은 53세이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져 퇴직시기가 전 생애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노후설계는 중요한 인생과업의 하나이다.
- 그러나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노후설계는 낯선 단어일 뿐이다.
- 더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30.1%, OECD 국가가운데 2위), 노인빈곤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48.6%, OECD 국가 가운데 1위).
-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된 가운데, 유급노동문화 중심으로 생활하였고, 노후소득보장제도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 그렇다고 노년기 사회참여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은 사후적·수동적으로 노년기 정책을 추진하고, 그나마도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 따라서 노후설계를 포함하여 전 생애를 포괄할 수 있는 ‘생애설계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살려, 청년기부터 안정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고, 동시에 사회참여, 여가, 자원봉사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노후를 적절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설계의 중요성】

- 최근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
- 그러나 퇴직시기가 전 생애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퇴직 후 ‘여생’은 ‘남는 여분’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노후설계는 중요한 인생과업의 하나이다.

[그림 1] 퇴직 후 기간(2000~2050년)



주) 평균퇴직연령(2005~2013년 동안 53세로 지속됨)은 53세로 동일하다고 가정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및 고령자부가조사를 토대로 작성

【노후설계 · 노후설계서비스의 기본 개념】

- 노후설계란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은퇴 후의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관하여 미리 진단하고 이에 대해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노후설계서비스는 이와 같은 노후설계를 지원하는 인적·물적 서비스로, 상담, 교육, 연계서비스, 사후관리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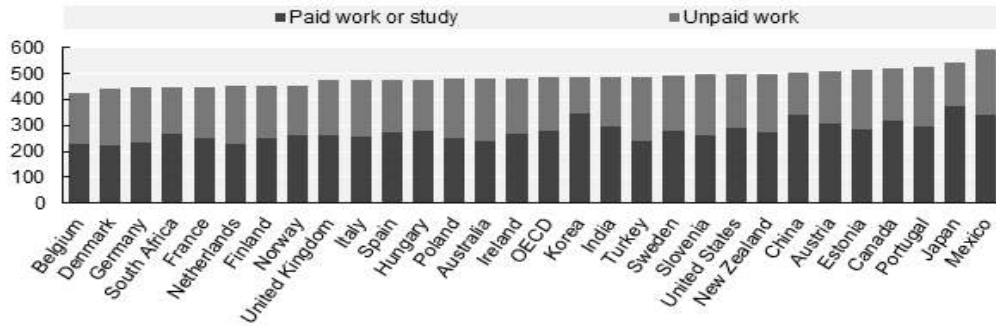
○ 노후설계서비스는 **보편적·균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구분	개념	이유
보편적 노후설계 서비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노년은 빈곤이나 장애처럼 국민일부에게만 해당되는 위험이나 삶의 단계가 아니라, 누구나 노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서비스	노년기 삶은 그 이전의 삶과 분절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있다. 또한 퇴직 후 시기가 30~40년에 이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전 생애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균형적 노후설계 서비스	재무·비재무 영역의 균형적 서비스	장수위험에 대비한 경제준비도 중요하지만, 퇴직 후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가시간을 위한 비재무영역도 중요하므로, 재무·비재무 영역의 균형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상담·교육·연계·사후서비스의 균형적 서비스	노후준비를 측정하고, 나아가 실제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상담, 교육과 함께 연계와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정도 : OECD 국가와의 상대적 비교】

□ 우리나라의 유급근로/학습 시간은(하루 평균 5시간 48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그림 2] 참고),

[그림 2] OECD국가의 유급근로·학업/무급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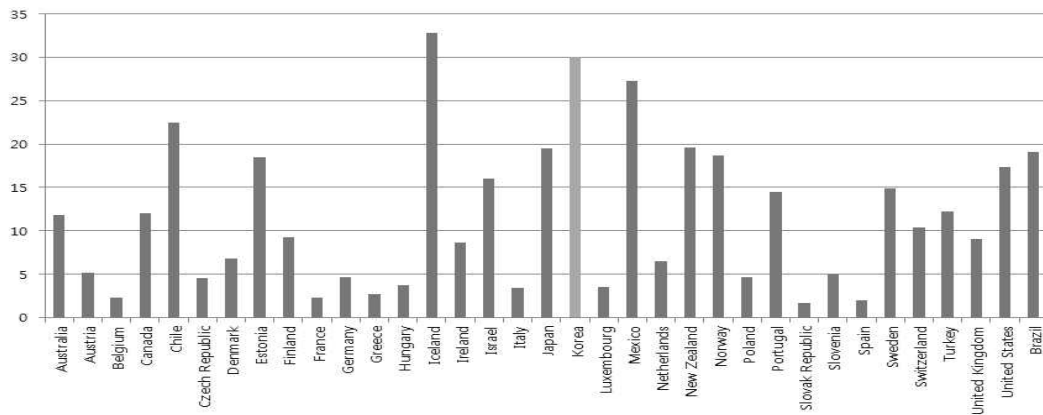


자료) OECD(2011)

○ 고령자 고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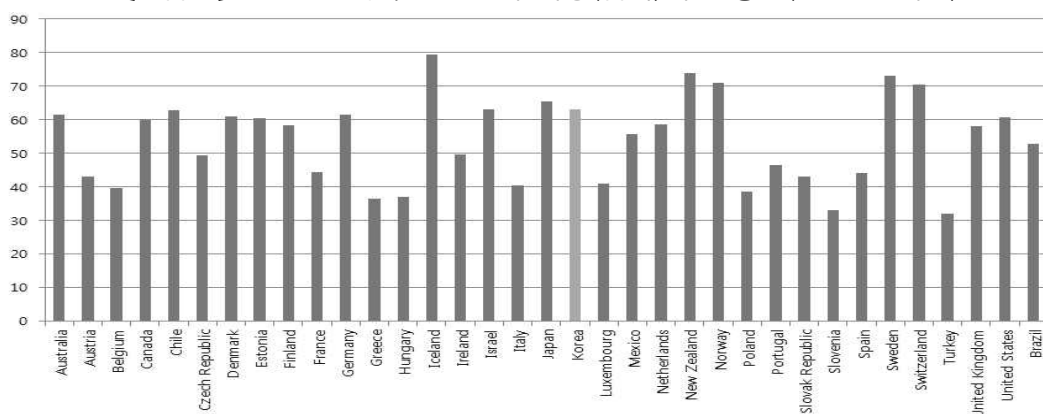
- 65세 이상 고용률(30.1%)은 OECD 국가 가운데 2위(그림 3).
- 55~64세 고용률(63.1%)은 OECD 국가 가운데 8위(그림 4).

[그림 3] OECD 국가 65세 이상(남녀)의 고용률(2012년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그림 4] OECD 국가 55~64세 이상(남녀)의 고용률(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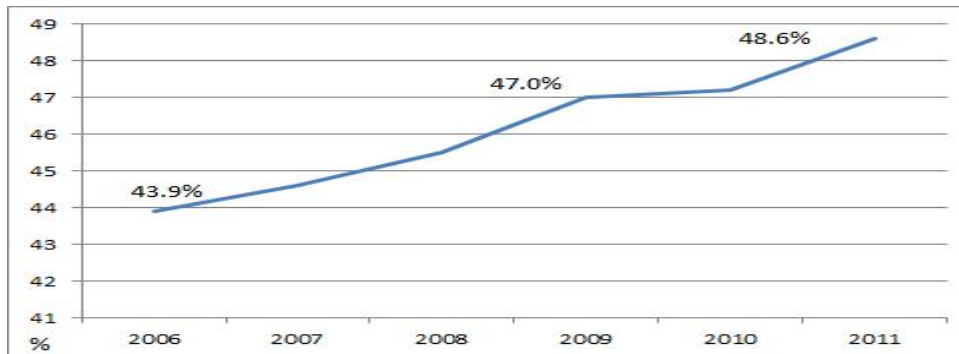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 역설적으로 노인빈곤율은 더 높아져, 48.6%가 되었다(중위소득의 50% 이하. [그림 5] 참고).
노인 2명 가운데 1명은 빈곤상태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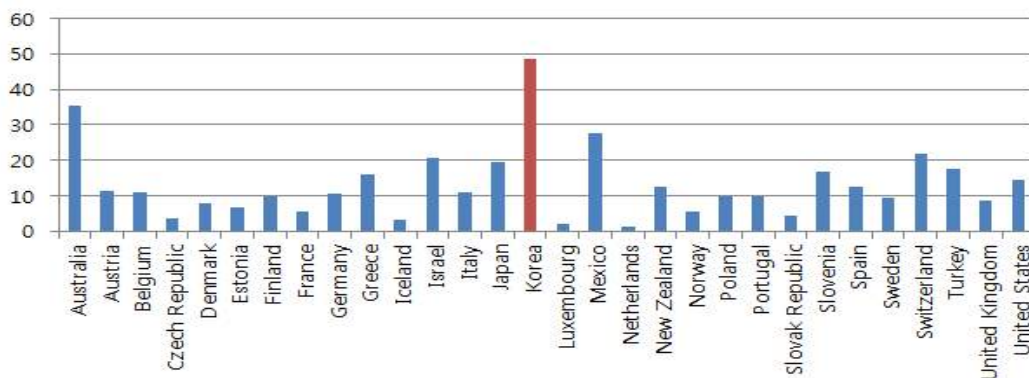
○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2.4%보다 4배 가까이 높아, 여전히 OECD 국가에서
노인빈곤율 1위이다([그림 6] 참고).

[그림 5]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추이(2006~2011년)



자료) OECD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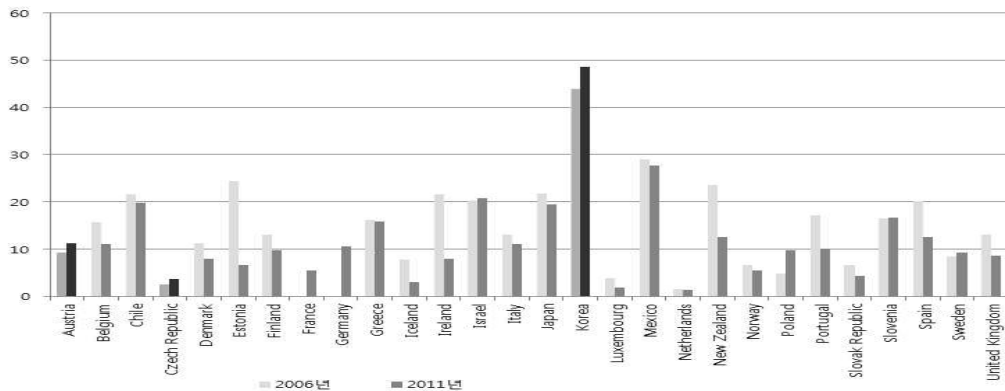
[그림 6]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



자료) OECD Stat.

○ 또한 다른 OECD 국가에서 노인빈곤율이 감소하는 것보다 대조적이다. ([그림 7] 참고
한국, 오스트리아, 체코만 증가)

[그림 7]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2006년 vs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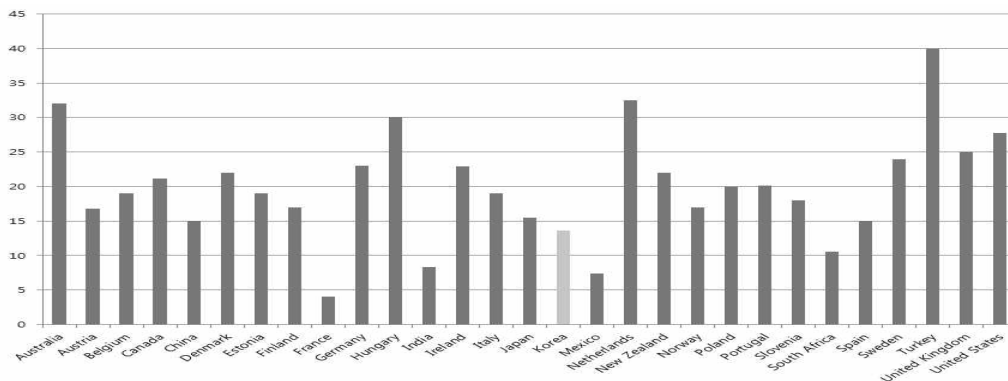


주) 2011년 자료가 없을 경우 2010년 자료 사용
자료) OECD Stat

□ 그렇다고 노년기 사회참여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된 가운데, 유급노동문화 중심으로 생활하였고, 노후소득보장제도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시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14분에 불과하여 OECD 28개국 가운데 25로 하위권에 속하고,

[그림 3-16] OECD 국가의 여행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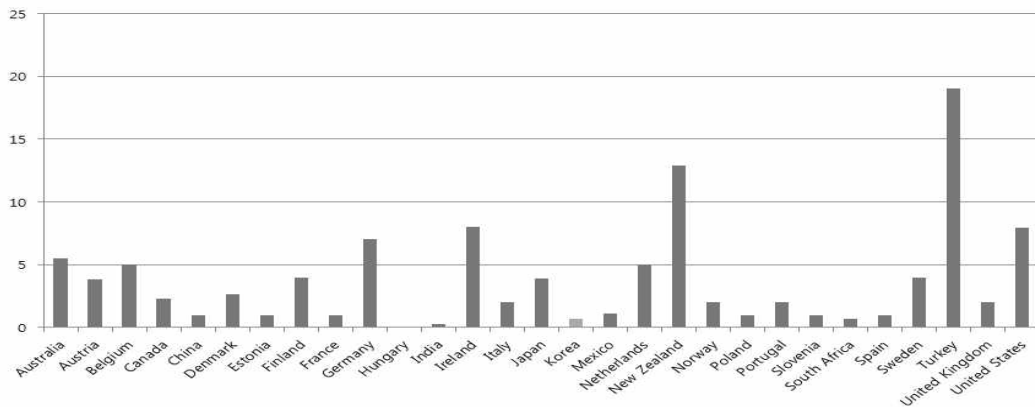


자료) OECD(2011)

- 자원봉사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1분에 그쳐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28개국 중 27위).

[그림 3-17] OECD 국가의 자원봉사 시간

(단위: 분)



자료) OECD(2011)

- 이렇게 일 중심으로만 생활하다가, 퇴직하면 갑자기 늘어난 여가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할지 알지 못하고, 퇴직 후 역할상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국내 노후설계서비스 문제점】

- 보편적·균형적 관점에서 국내 노후설계서비스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하위 영역	문제점
보편적 노후설계 서비스	전 국민	· 일부 계층만 혜택(근로자, 가입자 등) · 민간기관 중심 · 접근성 제약 · 비용부담 · 구심점 부재 · 지역사회 거점 부족
	전 생애	· 퇴직 직전 혹은 노년기에 서비스 집중 – 생애주기별 서비스 부족 – 단가분절적 서비스 – 노후설계에 대한 인식부족
		· 획일화된 노후준비진단지표 – 생애주기별·개인별 특성 반영 미흡
균형적 노후설계 서비스	재무비재무 영역의 균형잡힌 서비스	· 재무영역 중심, 전직지원서비스 중심 – 체계적·전문적 프로그램 부족
	포괄적 서비스 (상담·교육·연계·사후관리)	· 진단·상담중심 · 연계·사후관리 서비스 부족 · 연계기관 구축 미흡

【노후설계서비스 활성화 방안】

□ 상기 문제점을 고려한 노후설계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방안	세부 방안
노후설계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노후준비진단지표 보완
	보편적·균형적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표준화 및 보급
노후설계서비스 체계화	연계서비스 및 사후관리 강화
	기본서비스 및 심화서비스 강화
	체계적·전문적 교육 강화
인프라 구축	전달체계 구축
	- 중앙노후설계센터 구축
	- 지역노후설계센터 구축
	연계기관 구축을 통한 사회적 협력관계
	정보지원체계 구축(DB, 공사적 연금정보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사회적 인식제고
법적 지원	(가칭)노후설계지원법 제정

○ 이와 같은 체계가 구축되면, 노후설계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으로도 고령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유급노동시간이 크고, 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더 높아지고 사회참여율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은 아직 구축되지 못했고, 대부분의 정책은 수동적으로 노년기 시점에 사후적으로 단기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지원으로 노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생애전체를 포괄한 정책이 필요하다. 노후설계는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20대부터 인생주기에 따라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노후설계라고 하면, 근로연령계층에게는 먼 훗날의 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다. ‘노후설계’가 아닌 ‘생애설계’로 명칭을 바꾸어 20대부터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기부터 안정된 일자리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고, 동시에 유급노동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참여, 여가, 자원봉사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사회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이번 연구는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책설계를 뒷받침할만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실시되었다.
-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되, 정부의 노후설계에 대한 정책적 개입필요성은 OECD의 통계자료와 OECD Society at a Glance('09,'11), 한국복지패널 7차(2012년)를 활용하였다. 국내·외 노후설계서비스는 문헌연구와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서울노인복지관협회 및 노후설계수행기관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본 연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https://kordi.go.kr/>)홈페이지(메인화면 → 연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